



2026년 4월 26일(제1297호) 부활 제4주일(성소 주일)

군종주보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사랑으로의 부르심”

찬미 예수님, 오늘은 성소 주일입니다. 성소는 하느님의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사제들, 수녀님, 수사님들도 사제 혹은 수도자로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고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각자의 성소는 다릅니다. 하지만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랑하며 기쁘게 살아간다는 점에서 같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저는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다. 하느님에 대한 첫 느낌은 원망이었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성당도 열심히 나가지도 않았습다. 왜냐하면 저는 하느님을 많이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갑작스럽게 집안에 닥친 경제적인 문제로 1년에 이사를 여러 번 다녔고, 많은 것들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는 것은 처음 느껴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좁아진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늘 불행하다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동시에 하느님께 어떻게 하면 제가 행복해질 수 있는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다 예비 신학생 모임을 우연히 나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고해성사를 보려고 고해성사실 장례틀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전까지 찾지도 않았던 하느님께 고백하려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었죠.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 저에게 신부님이, “무엇이든 이야기해도 돼. 괜찮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께, 친구들에게 나누지 못하는 힘들, 미움, 불행감 등 모든 것을 다 이야기했는데, 이야기 하면서 참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5분 정도 말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럼에도 신부님은 앞에서 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참 고마웠습니다. 고해성사가 끝나고 성체조배를 하라는 말씀을 듣고, 십자가 조명만이 있는 성당에서 성체를 바라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생각이 들었죠. 문득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눈물, 콧물을 다 보여드려도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시는구나, 말없이 들어주시려 사랑으로 존재하시는구나, 저렇게 성체로 계시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제대 위에서 미사를 하는 사제로 살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자비로이 받아주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성체 앞에 머물던 시간은 너무나도 평화롭고 좋았습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신부님을 통해 전해진 하느님의 사랑이 마음에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제 삶을 다 드리고 싶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체험한 예수님은 착한 목자였고, 저에게 위로를 주신 분입니다. 고민과 걱정과 눈물 속에서 꺼내주신 분입니다. 고해성사 안에서 하느님의 품이 정말 넓다는 것, 그리고 이미 나를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느낀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느님은 눈물 흘리는 사람에게 찾아가시는 따뜻한 분입니다. 세상에 대해 정말 부정적인 시선이 바뀌게 되었고, 저의 모습은 바뀌어 갔습니다.

성소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사랑을 다시금 되새겨봅시다.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그분은 이미 우리의 고통을 앞서 가셨고, 우리와 함께 걷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알아가고 살아간다면 걱정과 고민은 예수님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부활의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하느님께 기도하며 각자의 성소의 자리에서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상훈(투기) 신부
회랑(제11기동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사도 2,14-36-41

회답송

◎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제 2 독 시

1베드 2,20-25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착한 목자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

복 음

요한 10,1-10

영성제송

착한 목자, 당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셨네.

당신 양 떼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네. 알렐루야.

진주교 군중교구사(군 시목 50년사)

2) 유급 문관 신분

1952년 6월 13일 국인명(國人命) 제58호로 육군 군중신부들의 무보수 촉탁 신분이 유급 문관 신분으로 바뀌었다. 육군 군중들은 민간교회 경력에 따라 2급 4호부터 3급 8호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 신부들에게는 2급(현역 중령 대우), 보조군목(補助軍牧)들에게는 3급(현역 대위 대우)이 주어졌다. 21명의 군중신부 중 조인원 신부는 2급 4호, 나머지 20명은 2급 6호를 각각 부여받았다. 그리고 1952년 5월 12일에 군중 제5기로 입대한 강영철, 원필호, 김창수, 이상훈, 유제영, 이완수, 조병식 등 7명의 보조군목들은 3급 8호를 각각 부여받았다.

이어 1952년 11월 16일 군중 제6기로 입대한 박춘택, 이길준, 박용상 등 3명의 보조군목은 3급 8호, 1953년 4월 8일 군중 제7기로 입대한 조창희, 이임춘, 장근실, 김창린, 윤광제, 이계항 등 6명의 군중신부는 2급 8호, 김창렬, 황춘홍, 이재만, 김용훈, 조남극, 김덕제, 이병만, 김남수, 최창규, 서상우, 이응현 등 11명은 3급 8호의 문관 신분을 각각 부여받았다.

이들은 전후방에서 군중활동을 열심히 전개하였다. 그 결과 많은 군인들이 천주교에 입문하였다. 유급 문관 신분으로 바뀐 이후 휴전되기 이전인 1953년 4월 29일 현재 육군의 종교 신자 수는 다음과 같았다. <다음 주에 계속>

<표 1-3> 육군의 종교별 신자 현황 (1953년 4월 29일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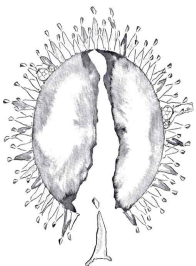
구분	천주교	개신교	불교	유교	기타	계
세례자	3,076	9,856				
예비자	2,618	18,796				
계	5,694	28,652	5,055	8,908	6,842	55,151

『진주교 군중교구사(군 시목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에 오를 수 없지.

이들이 나의
살 자리요.
사랑할 하늘이지.

이 사람들을
안아주지 못하면
하늘을 품을 수 없지.

**◆ ‘군중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

- 분량: A4 빈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신장 시 소장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상화이야기

신한 목지로시의 예수님



적지 미상 / 약 4세기경 제작
대리석, 약 101티 높이
비티칸 미술관(Vatican Museums)

이 작품은 ‘선한 목자(Good Shepherd)’를 표현하고 있는데, 본 주제는 사실 고대 그리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에는 신에게 바칠 제물을 어깨에 메고 가는 젊은이를 묘사한 장면으로 등장했으나, 로마 미술을 거쳐 초기 기독교 미술로 이어지면서 같은 이미지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고, 결국 예수님을 상징하는 중요한 도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 조각은 고전적 전통과 새로운 기독교적 의미가 결합되는 과도기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인물은 한쪽 다리에 체중을 싣는 콘트라포스토 자세를 취하고 있으며, 옷 주름의 표현과 신체 비례 역시 고대 그리스·로마 조각을 연상시킬 만큼 자연스럽게 정교하다. 이는 초기 기독교 미술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미숙했던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의도적으로 다른 표현 방식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머리카락과 양의 털을 섬세하게 연결하는 표현이나, 양의 몸집과 무게감이 느껴지는 부피감은 조각가의 뛰어난 관찰력을 드러낸다.

무엇보다 이 작품은 목자가 양을 어깨에 메고 보호하는 모습에서 깊은 상징성을 전달한다. 이는 단순한 목가적 장면을 넘어,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평화롭고 이상적인 삶으로 나아간다는 믿음을 담고 있다.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은 공동체를 돌보는 목자였으며, 죽음은 끝이 아니라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이 시기의 예수님은 젊고 평온한 목자의 형상으로 표현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



세부도

김은혜(엘리시벳)

교 구 소 식

군중주보 회원들을 위한 미사 - 부활 제4주일: 은하수 박형석 신부

◆ 교구장 동정

- 방패(수도방위사령부) 성당 사목방문
때: 4월 26일(주일)

◆ 교구 행사

- 2026년 제2회 군중교구 청년대회
때·곳: 4월 28일(화)~30일(목),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작은 기장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